

<표 2>

역본 번역 회수	표준새 번역 개정원고	표준 새번역	새번역	개역 한글판	공동	200	NIV	NEB	EJB	DJB	CEV	GN
때문이다	90	76	62		13	59						
따라서				73								
for							108	107	52			73
denn										163		
because							65	39	61		32	
since							2		17			
weil										28		8
now that							1		2		2	
now								1				
…ing								1	1			
seit												1
da										2		
ja										2		
--											15	
in fact											1	
really											1	
and so											1	
-때문에	7	5		8	5							
-므로	4	5	1									
-하니	2	2	2									
-하고	2	2										
-으니	10	10	11		12	8						
-이니	2	2	2	1		15						
(연)고로/인하여				5								
사실						21						
-던 것이었다						7						
기타	7	6	13	33	10	34	6	0	28	9	4	22
소계	116	101	77	86	63	115	176	148	113	195	52	82
×(생략한 곳)	106	122	139	110	156	80	47	81	88	25	173	125

1) KJV는 230개의 ‘호티’를 for로 번역했다. 따라서 ‘호티’는 대등접속사 for의 의미로 사용된다. RSV, NRSV, LB, ZB는 단지 몇 곳만 예외로 하고 KJV의 이 견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2) NIV, NEB, EJB, CEV는 이 for-대등절을 because-종속절로 각각 65회, 39회, 61회, 32회 바꾸었으며 DJB, GN는 denn-대등절을 weil-종속절로 각각 28

회, 8회 바꾸었다. KJV는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호티’를 한 번은 because로, 한 번은 for로 번역했다. 명령문이나 청유문 다음에 사용된 ‘호티’는 때로는 for/denn으로, 때로는 because/weil로 번역되었다. 이 현상은 한편으로는 원인 규명과 이유/근거/증거 제시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because/weil이 for/denn보다 더 직접적이며 더 분명한 이유/근거/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어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A: He must have passed this way, for here are his footprints.

B: He must have passed this way, because his prints are here.

C: He must have passed this way, because there is no other road.

A는 B보다 덜 직접적인 근거/증거/이유이다. B는 A보다 더 직접적이며 특수한 증거/근거/이유로 제시되었다. C는 명백한 증거이며 동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3) ‘호티’를 원인 제시의 접속사(=because)로 해석하느냐 논리적 이유/근거/증거 제시의 접속사(=for)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호티’-절이 원인을 나타낸다고 보면 그 여자가 많이 사랑한 것이 그가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구원 사건을 일으킨 원인인 셈이 된다. 정말로 그렇다면 공로주의 구원설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호티’를 for로 이해하면 그 여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은 그가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즉 그 여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지 결코 원인이 아니다. KJV, NIV, RSV, NRSV, LB, ZB는 for/denn으로 번역했다. 다음 번역들은 이것이 결과적 현상임을 더 분명하게 나타냈다.

And so, I tell you, her great love proves that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NEB).

So I tell you that all her sins are forgiven, and that is why she has shown great love(CEV).

Dehalb sage ich dir: Ihre vielen Sünden sind vergeben, darum hat sie viel geliebt(DJB).

Darum versichere ich dir: Ihre große Schuld ist khr vegeben worden. Das zeigt sich an der Liebe, die sie mir erwiesen hat(GN).

4) KJV, RSV, NRSV, LB, ZB 이외의 거의 대다수의 번역본은 for/denn을

뜻하는 ‘호티’를 번역에서 생략했다. CEV=173회, 「공동번역」=156회, 「새번역」=139회, GN=125회, 「표준새번역」=122회, 「개역」=110회, 「표준새번역개정원고」=106회, EJB=88회, NEB=81회, 「200주년」=80회, NIV=47회, DJB=25회인데 이 경우는 ‘호티’가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for/den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for/denn의 의미는 접속사를 생략하더라도 앞뒤의 문장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놀라운 것은 CEV는 성경전서 전체에서 for-대등절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다. GN, EJB, NEB, NIV가 각각 125회, 88회, 81회, 47회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면 현대적인 번역일수록 for/denn-대등절의 for/denn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성서는 「공동번역」=156회, 「새번역」=139회, 「표준새번역」=122회, 「개역」=110회, 「표준새번역개정원고」=106회, 「200주년」=80회이다. 이 통계에 의거하여 판단하면 「공동번역」이 가장 자유롭게 문체를 구사했으며 「200주년」이 원문에 가장 형식적 일치로 기하려고 했음을 볼 수 있다. 「표준새번역개정원고」는 「200주년」 다음으로 그리고 「개역」보다 더 많이 형식적 일치를 추구한다. 「표준새번역」이 122회로 나타난 것은 「공동번역」과 「개역」 사이의 중간 노선을 취하려는 「표준새번역」의 번역 취지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5) CEV는 ‘호티’/for-대등절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 대등절을 앞 문장 앞에 놓기도 한다(마 5:34; 15:23 등등). 명령문 다음에 이것이 올 때에는 접속사를 생략한 채 그 문장을 원래 자리에 둘 수도 있고(마 17:15; 행 9:15; 약 5:8; 벧전 5:5; 계 14:15; 22:10) 앞 문장 앞에 놓을 수도 있다(계 14:18; 22:10).

6) 마태복음 13장 16절의 ‘호티’-절을 KJV, RSV, NRSV, GN는 for/denn-대등절로, NIV, NEB, EJB, CEV, ZB, DJB는 because/weil-종속절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개정원고」, 「새번역」, 「공동번역」, 「200주년」은 다 같이 “보고 있으니/듣고 있으니”로 번역했으며 「개역」은 “봄으로/들음으로”라고 번역했다. 우리말 번역들은 모두 이 ‘호티’-절이 이유/근거를 나타낸다는 것을 잘 표현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의 ‘호티’-절은 영어/독일어 번역본에서는 CEV만 예외로 하고 모두 for/denn-절로 번역되었다.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개정원고」, 「새번역」은 “때문이다”로, 「공동번역」과 「200주년」은 “하였던 것이다”로, 「개역」은 “하였음이니라”로 번역했다. “봄이 왔다. 제비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러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

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어/독일어의 because/weil-절이 이유/근거/증거를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마 13:16) 우리말의 “때문이다”도 그러한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바로 지금의 이 문장 자체도 논증을 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 여왕은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것이 그녀가 장차 심판을 행하는 데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혜를 들으러 오고 심판 수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합격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함과 합격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7. 마태복음 5장 3,4,5,6,7,8,9,10절과 누가복음 6장 19,20,21절의 ‘호티’절을 「개역」은 “…것임이라”라고 번역했다. ‘…것임이라’는 ‘…것이라’와 엄연히 다르다. ‘…것이라’는 단순한 진술인 데 반하여 ‘…것임이라’는 앞에 발언한 내용이 진실인 까닭/소이/이유는 …것이라는 사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주년」은 시적 형식으로 번역했다.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표준새번역개정원고」는 “…것이기 때문이다”로 번역했다. 이와 달리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번역」은 헬라어 접속사의 의미를 한국어 낱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생략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번역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원문의 ‘호티’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려서 번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낱말을 사용하여 ‘호티’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 밖에 없는가?

어머니가 아침밥을 다 지어놓고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울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 1) 빨리 일어나. 밥 다 되었다.
- 2) 밥 다 되었다. 빨리 일어나.
- 3) 밥 다 되었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
- 4) 밥 다 되었으니(까) 빨리 일어나.
- 5) 빨리 일어나. 밥 다 되었으니(까).
- 6) 빨리 일어나. 밥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 7) 밥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야 해.

위의 여러 가지 표현은 다 옳다. 3-7은 일어나라는 명령에 대한 근거/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을 ‘그러나’, ‘때문에’, ‘때문이다’라는 낱말을 사용하거나 동사를 변형시켜서 명령문에 연결시켰다. 1-2는 아무런 연결사를 사용하지 않고 앞 뒤 두 문장을 이어 놓았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은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이 병렬된 것이 아니라 서술문의 내용은 명령문에 대하여 근거/이유를 제시하는 것임을 듣는 사람은 틀림없이 알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1 또는 2와 같은 형식의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말이 더 무게 있게 들리는 효과가 날 것이다. 3-7의 문장처럼 설명어를 덧붙이면 번거로운 친절성은 느껴질 수 있을지언정 말의 무게는 감소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는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의 회개 선포가 요약되어 있다. “회개하라”라는 명령문 다음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서술문이 이어져 있다. 원문에는 ‘가르’(=for/denn)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 한국어 번역 성서가 모두 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중하게 들리며 원문의 뜻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사도행전 9장 1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계시록 14장 18절의 명령문 다음의 서술문을 한국어 성서는 모두 원문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마태복음 5장 3-10절과 누가복음 6장 19-23절은 구원의 선물에 대한 예수의 장엄한 선언/선포이며 시적 형식으로 작성된 말씀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서처럼 이유를 표시하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독립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영어나 독일어 성서 중에 이 구절을 because/weil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어 번역인 NEB EJB CEV는 여기에 아무런 접속사도 사용하지 아니했다. 더우기 CEV는 성서 전체에서 이유를 표시하는 접속사 for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했다. 「표준새번역개정원고」에서 이 구절을 “때문이다”로 번역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원문에 ‘호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호티는 영어/독일어로 옮기면 대등접속사 For/denn이지 종속접속사 because/weil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끝낸 후에 「구역성경」(1911)의 번역을 확인해 보고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역」은 ‘팔복선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먹음이 간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턱국이 저희 것이오
 인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더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더희가 싸

를 차지할 것이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역」은 원문의 접속사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원문의 장엄한 선언문적 성격과 우리말의 특성을 둘 다 잘 살린 좋은 번역이다. 「개역」이 이것을 ‘…것임이요’라고 개정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며 번역의 후퇴에 속한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